

시간을 초월한 잉카문명,
페루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

마추픽추



마추피추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 미지의 공중도시, 마추피추(Machu Picchu). 세계의 대표적인 불가사의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마추피추는 수수께끼 같은 역사뿐만 아니라 신비로움과 장엄함으로 특별한 경험을 안겨주는 여행지다.



여행의 출발은 쿠스코에서

마추피추 여행은 페루의 쿠스코에서 출발한다. 쿠스코는 페루의 역사를 품에 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마추피추는 쿠스코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다. 대부분 여행자들은 마추피추에 짐을 풀고 잉카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3박 4일 트레일을 걷는다. 또 시간이 여의치 않거나 고산병이 두려운 이들은 기차를 이용해 하루 만에 마추피추를 만나고 오기도 한다.

마추피추까지 가는 길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산에 우아하게 걸려있는 구름하며 이끼 낀 산들, 꽃을 들고 있는 세노라(‘아주머니’라는 뜻의 스페인어), 가끔 만나는 여행자들, 머리 한 가득 옥수수를 이고 가는 케추아 여인, 그곳에 오르는 동안 만나는 풍경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해진다.

울창한 밀림과 깎아지른 듯 서 있는 절벽을 배경으로 우루밤가 강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놀라운 공중도시 마추피추가 등장한다. 700년

전에 1만여 명의 잉카인들이 살았던 마추피추. 마야문명과 함께 남미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잉카문명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다. 마추피추는 밀림에 가려져 아래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공중도시’라고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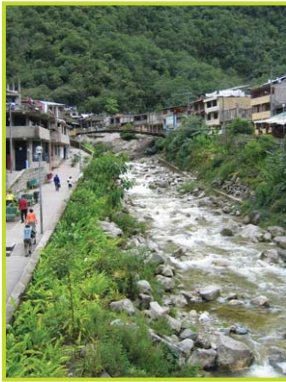
잉카인들의 흔적을 찾아

마추피추에는 태양의 신 ‘인티’를 모시는 태양의 신전을 비롯해 고대 문명을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다. 마추피추의 면적은 5km²로, 과거에는 약 1만 여명이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의 유적들을 둘러보다보면 어느새 시간은 700년 전으로 돌아가 있다. 지금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 완벽한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곳으로, 신을 모시던 사원을 비롯해 농사를 짓던 흔적과 창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이들을 가둬두었던 감옥까지 넓지 않은 그 곳에 현재 도시의 축소판이 펼쳐져 있다. 하늘과 별을 관측하던 곳들이 남아있어 잉카인들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도 가늠할 수 있으며, 커다란 돌을 정교하게 다듬었던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마추피추는 밀림에 쌓여 있다가 1911년 7월 24일 미국의 탐험가 히람 빙엄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이후에도 한동안 묻혀 있었다. 이후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유네스코에서 고고학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마추피추가는 길에 만나는 온천도시, 아구아 칼리엔떼
▲ 계단식 논으로 이루어진 안데스의 골짜기들

마추피추에 가면 잊지 말고 꼭 알아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마추피추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봉우리다. 그곳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에 빠져본다. 과거 잉카인들을 그려보고 스페인 사람들과 싸웠던 그들의 역사,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와 스스로 만들어갈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상념들을 떠올려 본다. 웬지 영험한 기운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해답을 안겨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굿바이 보이가 알려준 삶의 치열함

삶에 대한 질문과 나름의 해답을 안고 마추피추에서 내려오는 길에 또 다른 인생의 스승, 굿바이 보이를 만나게 된다. 마추피추에서 쿠스코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면 환하

게 웃으며 ‘굿바이’를 외치는 소년이 나타난다. 놀라운 것은 그 소년이 버스가 코너를 도는 동안 산을 가로질러 뛰어내려와 다시 버스 앞에서 ‘굿바이’ 하고 웃는다는 것. 그러기를 몇 굵이나 했을까. 굵어진 고개를 다 내려와서 버스가 멈춘 후에야, 굿바이 보이의 인사도 끝이 난다.

마지막 인사를 마친 굿바이 보이는 송글송글 맺힌 땀을 옷소매로 스윽 닦고 뒤집어진 모자를 들고 버스를 한 바퀴 돈다. 그리고 여행자들이 건네는 얼마 되지 않은 동전을 보고 해맑은 웃음을 짓는다. 그때, 굿바이 보이가 보여준 삶의 치열함은 마추피추의 놀라움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다.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을 때 문득 그의 눈빛이 떠올리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



<여행정보>

✎가는 방법 : 페루의 수도 리마에 들어간 후, 쿠스코로 이동해서 여행을 시작해야 한다. 인천에서 리마까지 직항편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도시를 경유해 리마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행 팁 : 쿠스코는 해발 3360m로 고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이럴 때는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책이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코카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 차 : 페루가 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늦다. 한국 시각으로 자정이면 페루는 전일 10시.



● ● ● Machu Picchu ● ● ●

